광주 가전산업이 다시 뜬다

❸ 협력업체 독자 브랜드 승부수

전문 생산회사로 '부품업체의 변신'

기술력 바탕 아이디어 제품 속속 출시
제습기·소주냉동고·파종기 등 수출도

광주지역 가전산업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대우일렉트로닉스·오텍캐리어 등 대기업 3사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300여 협력업체가 이들 3곳에 각종 부품을 공급, 가전산업 성장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1차 협력업체들은 단순 가전부품 공급을 뛰어넘어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 전문 생산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디케이산업(주)'(회장 김보곤)은 제습기 '디에떼'를 내놨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가전부품을 생산·공급하는 디케이산업은 20여년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정용 제습기를 개발했다. 아열대기후로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제습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디에떼'는 디케이산업의 고유 브랜드로 '지중해의 쾌적한 바람'을 뜻한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 자동제습 기능으로 40~60%의 건강습도를 유지해준다. 또 아로마키트를 적용해 상쾌한 실내공기를 느낄 수 있다. 꺼짐·켜짐 예약기능을 활용, 외출 뒤 집에 돌아오기 전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 수 있다.

김정배 대표이사는 "매출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은 부품업체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사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필요했다"며 "신개념 제습기 '디에떼'는 그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삼성·대우·동양매직 협력업체인 광주 하남산단의 '(주)글로벌엔와이'(대표 김일환·문창식)는 소주냉동고 '酒(주)빙고'를 상품화했다.

酒빙고는 소주를 영하 10도에서 보관해 소주가 얼음처럼 차갑지만 얼지 않은 상태로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져 마실 때 목넘김을 좋게 해준다. 주요 판매처는 음식점이다. 연간 1만대 생산·판매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 6월 나영산업의 제품분야를 인수한 글로벌엔와이는 이달 중으로 쌀 냉장고도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 첨단산단의 '지금강(주)'(대표이사 김식)은 삼성·대우·기아차의 사출·도장 협력업체다.

디케이산업 제습기 '디에떼'

지금강 전동스쿠터

지금강은 지난 3월 신제품 '트랙터 부착형 무논 점파 파종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못자리 없는 벼농사와 노동력·농자재비용을 17%가량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농기계다. 이 제품은 쿠바·페루·인도네시아 등 세계 27개국 수출하고 있다. 내년에는 100~150대를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

지금강은 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도 자체 브랜드로 선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비엔날레 어반 폴리 참여
봉고 개조 이동식 틈새호텔 무료운영

기아자동차가 광주비엔날레 '어반 폴리(URBAN FOLLY)'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아차는 오는 11월11일까지 두 달동안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어반 폴리 프로젝트의 하나인 '틈새호텔'을 무료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틈새호텔은 설치미술가 서도호씨의 작품으로 이동식 신개념 호텔이다. 기아차는 작품 후원과 제작 협업자로 참여했다.

틈새호텔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봉고Ⅲ 1.2t 트럭을 개조해 만든 극소형 이동식 호텔이다. 건축과 이동성, 지역사회와 예술의 접목을 통해 지역 생태계와 교류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매개체라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기아차 디자인팀이 소재와 컬러 디자인을 담당했고, 서아키텍스가 호텔디자인 전반을 맡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했다. 전시 이후에는 다큐멘터리영상·작품집 형태로 기록돼 소개된다.

최고급 호텔 수준의 고급 원목 마루, 천연가죽, 인조대리석, 태양열 집열판 등이 사용됐다. 호텔 내부에는 미니바, 샤워시설,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호텔 내부에 TV 겸용 키오스크를 설치해 호텔 이용법, 호텔 디자인·설계과정, 다른 투숙객이 머물고 간 히스토리, 호텔 주변 500m의 편의시설 등 정보도 제공한다.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틈새호텔' 체크인·체크아웃 등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숙을 원하는 고객들은 틈새호텔 웹사이트(www.inbetweenhotel.com)에서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고, 투숙 당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체크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틈새호텔'은 광주비엔날레 기간 이후에도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도호(오른쪽) 작가와 서을호 서아키텍스 대표가 기아차에서 제공한 봉고Ⅲ를 '틈새호텔'로 개조해 광주비엔날레 기간 무료로 운영한다. 틈새호텔은 광주비엔날레 어반 폴리 프로젝트의 하나다. 〈기아차 제공〉

올 추석 선물비 27만원
차례상 비용은 30만원

주부 600명 조사

주부들은 올 추석 선물과 차례상 비용 등으로 약 60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추석 소비계획'을 조사한 결과, 선물 비용으로 평균 27만7000원, 차례상 비용으로 29만6000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선물 가격대는 3만~5만원이 34.4%로 가장 많았고, 5만~10만원 26.8%, 1만~3만원 22.1%, 10만~15만원 11.9%, 15만원 이상 4.5% 순이었다.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27.8%가 과일 등 농산물세트를 꼽았다. 이어 상품권(17.8%), 건강식품(11.4%), 생활용품세트(10.2%), 가공식품(9.3%) 등이었다.

선물구매 장소로는 대형마트(60.5%)를 가장 선호했다. 인터넷쇼핑몰(15.9%), 백화점(12.1%)의 선호도도 비교적 높았지만, 전통시장(5.2%), 홈쇼핑(3.1%), 슈퍼마켓(1.1%)은 낮았다.

반면, 제수용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59.8%)와 전통시장(36.3%)을 선호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올 추석연휴의 소비 규모는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소비심리를 반영하듯 작년보다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40.3%에 달했다.

추석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대책으로는 55.7%가 물가안정을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F1 입장권 구매 F1대회조직위원회는 6일 전남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호남 목포상의 회장, 송영수 순천상의 회장,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 김효수 광양상의 회장과 박종문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00만원의 F1대회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올 임금 인상률 평균 5.1%

올해 들어 7월까지 임금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작년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8835곳 가운데 7월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3408곳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평균 5.1%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평균 인상률 5.2%에 비해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 타결 완료 사업장 비율)은 38.6%로 지난해 같은 기간(43.0%)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로 경제가 휘청대던 1998년(-2.7%)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999년(2.1%)을 지나며 반등해 2000년(7.6%) 정점을 찍었다. /연합뉴스

대기업 인력 구조조정 태풍 분다

불황 장기화…건설·정유사 등 희망퇴직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산업계에 인력 구조조정의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수출 활로를 뚫지 못한 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일부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리해고의 찬바람이 몰아쳤던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다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확보하는 현상들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동차업계에는 르노삼성이 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르노삼성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는 2000년 회사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르노삼성은 기업 회생 방안의 하나로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부문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돈이 되지 않는 곳'의 고비용 인력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국내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 사업의 비중을 줄이면 당연히 감원이 따르는 형식이다.

수익성이 담보되는 몇몇 분야에만 집중함에 따라 실제로 일부 업체의 주택·건축 분야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플랜트 분야 지원자들만 초청해 2차례의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 영업본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70여명의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주로 50대 초중반의 팀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영 주유소에 근무하도록 해주고 60세까지 정년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다른 정유업체들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영업 인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갤럭시S3 2000만대 팔려

스마트폰 갤럭시S3가 출시 100일만인 5일 글로벌 시장에서 2000만대 이상 팔렸다고 삼성전자측이 6일 밝혔다.

이는 하루 20만대씩 팔린 것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상 최단 기간 기록이다. 지역별로도 유럽 600만대, 아시아 450만대, 북미 400만대, 한국 250만대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81.24 (+7.21)
▲ 코스닥지수	506.72 (+1.33)
▲ 금리 (국고채 3년)	2.75% (+0.01)
▼ 원·달러 환율	1,133.80원 (-2.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1등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맛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